



유럽은행, 기업 지급불능위험으로 대출 기피

김혜란 연구원

- 유럽은행은 부채상환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지급불능위험을 이유로 대출을 꺼리고 있음.
 - 유럽 기업의 매출 및 이익 하락에 의한 기업신뢰 부족으로 민간 부문 대출여건이 악화되고 있음.
 - ECB 조사에 의하면 2011년 3/4분기 금융기관들은 기업 신용대출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, 2011년 4/4분기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봄.
 -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2012년 유로존 기업의 지급불능위험(부채가 총자산과 현금을 초과)은 12%로 예상됨.
 - 그리스, 스페인, 이탈리아의 지급불능위험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.
 - 지급불능에 처한 유럽 기업의 2/3는 결국 파산 신청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됨.
 - 지난 1월, 유럽의 최대 정유회사인 스위스 Petroplus Holdings는 높은 석유 가격과 경제 악화로 17억 5천 달러의 부채 상환 요구에 파산을 신청한 상태임.

- 대출을 받지 못한 채 부채를 갚아야 하는 기업들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투자를 줄여 현금을 보유하고 있음.
 - 영국 pub chain인 Punch Taverns는 지난 10년간 사업 확장을 위해 74억 달러를 빌렸으나 재무구조조정을 위해 2개 회사로 분사하여 부채 규모가 큰 회사의 자산 매각을 시도하고 있음.
 - Standard & Poor's에 따르면 투자적격 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을 가진 유럽 기업들이 2012년에 갚아야 할 부채가 720억 달러에 이르며, 이들의 채무불이행은 8.4%에 이를 것으로 봄.

- ECB가 유럽은행들에 저리로 대출한 4,890억 유로(6,390억 달러)는 유럽은행들의 기업 대출 기피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.

- 유럽은행들은 기업에 대출하기 보다는 ECB에 안전하게 예치하는 것을 선호하여 지난 1월 18일 ECB의 하루짜리 초단기 예치금은 7,000억 달러로 1999년 유로화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.

■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보유자금이 풍부한 다국적 기업에게는 기업인수 기회가 될 것임.

- 유럽 기업들 중 건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부적절한 자본 구조로 재융자(refinancing)를 못 받아 지급불능에 처한 기업이 많음.
- 독일의 Siemens와 네덜란드의 Philips를 포함하여 자금이 풍부한 다국적 기업들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기업 들 중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고 있으며, 사모투자회사도 기회를 엿보고 있음.

(NYT, 2/6)